

## 정보화 문화의 교차로에서

이 재 선

〈국립중앙도서관 지원협력과 사서〉

제64차 국제도서관연맹(IFLA) 대회가 '정보와 문화의 교차로에서'라는 주제아래 8월 16일부터 21일까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개최되었다. IFLA 총회가 네덜란드에서 개최된 것은 1939년 헤이그와 암스테르담, 그리고 1966년 쉐베닝겐에서 열린 데 이어 이번이 세 번째이다. 이번 대회는 공식집계에 따르면 세계 120개국에서 3,328명의 도서관인들이 참가하는 대성황을 이루었다고 한다. IFLA 대회는 회원국을 순회하면서 열리는데 지난해에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렸다.

IFLA는 1927년 창설된 비정부기구로서 UNESCO와 함께 공식적으로 활동해왔다. IFLA의 목적은 도서관 활동과 문헌정보학 전반에 걸친 국제적인 이해와 협력, 토론, 연구 및 개발을 증진시키고 도서관인들이 국제적인 공동 관심사를 논하는 장을 제공하는 데 있다. 현재 회원으로 141개국 1400이상의 도서관 및 관련 단체들이 가입되어 있다.

IFLA조직은 헤이그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운영 조직으로 심의 평가를 담당하는 실행위원회와 전문위원회 그리고 4개의 자문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실행위원회는 IFLA의 정책, 운영과 재정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전문위원회는 두 개의 하부조직인 전문가 그룹과 5대 코아 프로그램에 의해 수행되는 전문적인 활동의 기획과 프로그래밍에 대하여 모니터 한다. 전문가 그룹이란 8개의 부회와 그 아래있는 34개의 분과와 11개의 원탁회의를 말한다.

IFLA대회는 한국도서관협회가 주최하는 전국도서관대회보다 좀더 규모가 큰 행사라고 생각하면 상상하기가 쉬울 것이다. 대회 전체를 아우르는 주제가 설정되어 있고, 그 아래 각 분과별 발표회 또는 원탁회의가 동시에 여러 곳에서 진행된다. 따라서 참가자는 프로그램을 보고 자신이 참석할 분과나 포럼 등을 미리 정해두지 않으면 우왕좌왕 하게 된다. 그리고 참석기간 중에는 매일 발행되는 《IFLA EXPRESS》를 반드시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 자료는 IFLA 대회 일정의 변경이라든가, 하루 동안 일어난 소식을 알려주는 일종의 신문과 같은 역할을 한다.

### ● 털실 네트워크

8월 16일 일요일 아침, 참가자 등록이 개시되면서 대회의 공식 일정이 시작되었다. 아침 이

른 시간이지만 대회장인 라이(RAI) 의회센터는 등록하려는 사람들로 붐볐다. 우리 도서관 정기영 관장님과 이숙현 지원협력과 사서사무관님과 함께 등록을 마치고 검은 가방에 튜올립 꽃무늬

가 새겨진 가방을 하나씩 받아 들었다. 그 안에는 참가자를 위한 명찰, 발표논문, CD-ROM, 논문 교환 쿠폰 10매, 초청장 등 일체가 들어 있었다. 참가자들은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난 듯이 표정마다 즐거움이 넘치고 있었다.

개회식은 저녁 6시에 넓은 델타홀에서 열렸다. 식전에는 IFLA사무국이 신입회원을 위해 마련한 대회 설명회가 있었다. IFLA 초기의 대회장 모습들을 슬라이드를 통해 영상으로 볼 수도 있고, 조직 구조, 프로젝트 등에 관하여 설명함으로써 참가자의 IFLA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적극 참여를 권하기도 한다.

한편에서는 같은 시간에, 도서관이 갖는 사회적 책임에 대한 토론과, 모든 분야의 책을 수집하는 국립도서관, 대학도서관, 조사연구도서관은 참고업무를 관내 어느 부서에 두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앞으로의 참고봉사업무는 어떤 양상을 가지게 되는가에 대해 토론하는 모임이 있었다.

IFLA 코아프로그램 공개 포럼에서는 IFLA가 추진하고 있는 5대 핵심 사업인 제3세계 도서관진흥(ALP: Advancement of Librarianship in the Third World), 자료의 보존과 보호(PAC: Preservation and Conservation), 세계 출판물 공동이용(UAP: Universal Availability of Publications), 세계서지통정과 국제MARC(UBCIM), 국제원격통신 정보이용(Universal Dataflow and Telecommunications)에 관한 보고가 있었다.

특히 IFLA UAP사무국은 도서관간 상호대차시 자료 대출이나 복사에 따른 비용을 현금대신

“IFLA Voucher”를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우리 도서관에서도 이를 최근 일부 외국도서관에 대해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영국도서관의 코니시(G. Cornish) 씨의 보고에서는 도큐먼트 크리에이트(create)에 따르는 비용이 높아 자료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며 이에 대한 도서관간의 세계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독일도서관의 플라샤르트(Marie-France Plassard) 씨는 UBCIM 코아 프로그램 보고에서 UNESCO와 IFLA 공동으로 오는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 코펜하겐에서 국가 서지 서비스에 대한 국제회의가 열린다고 예고하였다. 이 회의는 1977년 UNESCO에 의해 파리에서 열린 국가서지에 관한 국제회의 이후 20년만에 열리게 되며, 그동안 국제적 출판물의 증가와 웹과 같은 기록 분배의 수단의 변화에 따른 국가서지 및 MARC의 환경변화에 대하여 논의하는 중요한 회의임으로 적극적으로 참가할 것을 권하였다. 또한 UBCIM은 지난 5월 UNIMARC 서지 포맷 및 전거 포맷을 “콘사이스 웹(concise web)”으로 띄웠고 앞으로 전체 유니마크 매뉴얼을 웹상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UNIMARC 가이드라인을 발간할 것이라고 하였다.

저녁 6시가 되자 개회식장, 델타홀은 참가자들로 가득 찼다. 자리에서 서로 인사를 나누는 사이 갑자기 옛 네덜란드의 병사들과 같은 복장을 한 악대와 함께 가장 행렬이 나타났다. 귀여운 소녀와 강아지까지 등장한 일행은 무대 위로 올라가더니 렘브란트의 살아있는 ‘야경(night

watcher)'을 그려냈다. 루디 반 데어 벨트(Rudi v.d. Velde) 대회조직위원장은 연설에서 "더 이상 국립박물관에 갈 필요가 없다"고 해서 좌중을 한바탕 웃음 바다로 만들었다. 마치 단막극과 같았던 개회식은 내내 재치있는 연설과 유머러스한 진행으로 지금까지도 인상 깊게 남아있다. 우리네의 엄숙한 식장 분위기와는 매우 대조를 이루었다.

이어 지난해 코펜하겐 대회에서 새로 선출된 크리스틴 드송(Christine Deschamps, 파리 제5대학 도서관장) IFLA회장의 개회사가 있었다. 회장은 '97년 회장에 선출된 후 세계 여러 곳을 방문하였고, 그 기간동안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찾아냈다고 하였다. 모든 것을 동시에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우선적으로 교육(education), 표현의 자유(freedom of expression), 표준화(standardization)를 위해 노력할 것을 강조하였다.

첫째, 교육에 대해서는 훈련, 그 자체로 그치는 것이 아니며 이미 사서를 위한 통신교육(correspondence courses)을 포함한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고 하였다. 구술로 전해오던 때에도 도서관은 중요했고, 정보 접근이 자유로운 지금도 도서관은 경제발전을 높이고, 국가 정체성을 세우며, 국민을 모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역설하였다.

둘째,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현재 FAIFE위원회에서 작업을 하고있다고 하였다. FAIFE는 'Free Access to Information and Freedom of Expression'의 약자로 지난해 코펜하겐 대회에서 처음으로 설립된 IFLA위원회 중 하나이다.

인간의 기본적 권리로서 정보에의 자유접근과 표현의 자유를 진흥하고자 함에 목적을 두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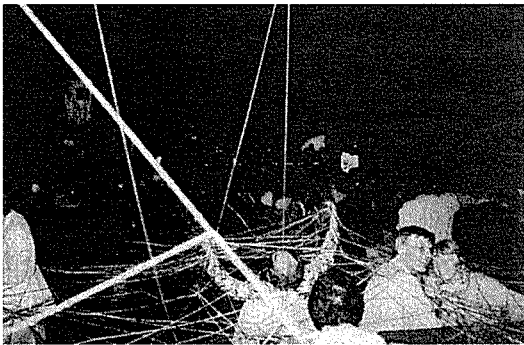
셋째 표준화와 관련하여 ISO/TC46의 의장인 드송 회장은 도서관 분야의 표준화를 다루는 IFLA 서지통정위원회와 도큐멘테이션의 표준화를 다루는 ISO/TC46의 역할이 비슷하므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밖에도 축사에서 릭 반 데어 플리그(Rick van der Ploeg) 교육문화과학부장은 "정보는 주요 생산 요소이며, 모두들 정보에 접근 한다. 우리는 멀티미디어 시대를 만들어야만 한다"면서 "자유는 오직 책과 도서관이 있는 곳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고 하였다.

필리페 쾨에(Phillippe Queau) 유네스코 대표는 "정보 혁명은 이제 멈출 수 없고 가속화 될 것"이라고 하면서 IFLA와 UNESCO간의 지속적인 협력을 강조하였다. 또한 "책은 만인의 것(Books for all)" 사업이 8월 19일로 25주년을 맞이하여 암스테르담 공공도서관 뷔텐벨데르트(Buitenveldert) 분관에서 축하식을 갖는다고 하였다.

에카테리나 게니에바(Ekaterina U. Genieva, 러시아국립도서관) IFLA 제1부회장은 책은 여전히 매우 중요하며 전세계에서 많은 도서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였다. 문맹과 싸우기 위해 설치된 국제도서위원회를 대표하여 1998년도 국제도서상을 포르투갈의 마리아 호세 마우라에게 수여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마우라는 포르투갈을 위한 공공도서관 프로그램을 출범시켰고, 이 프로그램은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다고 한다.

개회식이 끝나는가 싶더니 까만 연미복을 입은 “키다리 아저씨”가 걸어 들어왔다. 그는 박수로 좌중의 시선을 모았다. 그러는 사이 갑자기 동그라게 공처럼 감은 실들이 참가자들 머리위로 떨어졌다. 참가자들은 서로 실을 던지기 시작하였고 장내는 금방 오색 실로 된 실 그물에 휩싸이게 되었다. 잠시후 “우리 모두 함께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대회를 통해서 네트워크를 만드세요.”라는 코멘트가 있었다. 참으로 인상 깊은 장면이었다. 개회식을 마치고 나오자 야외 트랙에 마련된 리셉션장에는 풍성하게 차린 인도네시아풍의 음식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뜰 가득히 대화의 꽃이 활짝 피었다. 한편 개회식장 앞 홀에서는 악단의 신나는 연주 그리고 블루진 차림의 네덜란드 젊은이들이 춤을 추고 있었다. 그들과 어울려 참가자들은 축제의 저녁을 보냈다.



▲ 개회식 ‘털실네트워크’프로그램 모습

• 각종 논문 발표와 워크숍 •

둘째날, 우리 일행은 Contributed Paper Session의 첫 번째를 장식할 금옥여고의 함명식 선생님의 발표를 참관하기 위해 모두 몰려갔다.

함 선생님은 “학교에서 ‘정보와 매체’ 교과를 교육하기 위한 학교사서의 매체 기술과 모든 사서에 주는 시사점”이란 제목으로 발표하였는데, 이 논문은 IFLA전문위원회에서 공모하여 채택된 7편의 논문 중 하나이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연초에 논문을 공모한 바 있으며, 채택된 논문에 대해 참가비의 일부를 지원하였다.

전날에 이어 각종 워크숍과 분과회 발표가 있었다. 한 주간동안 각종 모임은 모두 210여회를 넘었고 모임마다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는 진지한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우리 일행은 국립도서관에 관한 분과와 우리 도서관이 가입하고 있는 14개 분과에 참석하려고 노력하였다.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었던 「장서수집 및 개발」과 「도서관과 마케팅」 등은 다른 분과에 들어서 조금 늦었더니 출입문 밖까지 사람들이 서서 듣는 통에 되돌아와야 했고 발표원고는 떨어지고 없었다. 누군가가 웹사이트에서 나중에 찾아보라며 웹주소를 알려준다. 워크숍에서는 미리 준비된 발표문안이 없고, 있더라도 수량이 적어 조금만 늦어도 가질 수가 없었다. 각 분과별 발표문은 등록할 때 받은 “IFLANET Unplugged 1998” CD-ROM과 Booklet에 수록되어 있다. 워크숍에서는 대부분 발표문이 없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참가자 디렉토리를 참고하여 개인적으로 문의할 수도 있다.

대회장 2층에서는 출판사를 중심으로 도서관용품회사, 국립도서관 등 101개 부스가 참가한 하나의 국제 전시회가 열렸다. 그 한 쪽 코너에는 참가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E-mail을 사용할 수 있도록 컴퓨터를 비치하여 인기를 끌었

다. 전시회의 특색은 영국국립도서관을 비롯하여 프랑스, 네덜란드 국립도서관 및 미국의회도서관 등이 그리고 미국도서관협회(ALA)가 각각 독립 부스를 차리고 있었던 점이었다. IFLA 출판물 부스에 들렀을 때 기념으로 『자료보존원칙』 단행본과 “Books for all” 포스터를 각각 하나씩 샀다. 전시장에서 또한 눈에 띄는 모습은 전시 부스마다 찾아다니며 인사하던 태국대표단들이었다. 전시회장을 부산히 누비며 내년도 방콕 대회에 와달라는 인사와 함께 전통문양의 선물을 부스담당자들에게 건넸다. 전시회는 일요일부터 수요일까지만 열렸다.

또한 대회장 2층에는 전시장 입구 쪽으로 스낵 코너가 준비되어 있어 점심은 주로 이곳에서 사먹었다.

이날 저녁 참가자들은 네덜란드 대회조직위원회가 준비한 “문화의 밤”을 향수하기 위해 해양박물관(the Scheepvaart museum)으로 향했다. 박물관에는 과거 해양 제국이었음을 자랑이라도 하는 듯 전시품들이 가득 진열되어 있었다. 이곳에서 참가자들은 네덜란드의 유명한 각종 치즈를 얹은 음식과 와인을 맘껏 들면서 이 테이블에서 저 테이블로 새 친구 사귀기에 바빴다. 한참 후 참가자들은 박물관 부두에서 쇠벙선을 타고 달밤의 운하를 도는 행운을 엿었다.

### ◡세계국립도서관장 회의◡

셋째날은 크라스나폴스키(Krasnapolsky) 호텔에서 각국의 국립도서관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립도서관이 당면한 문제와 정책 및 운영에 관

하여 토의하는 국립도서관장회의(CDNL: Conference of Directors of National Library)가 열렸다. 올해로 25회를 맞이한 이 회의에서는 전자출판물의 납본에 관한 국가적 공동관심사를 중심으로 논의가 있었다고 한다. 일년에 한차례 만나기 때문에 깊이 있는 결과를 얻기는 어렵지만 현안 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하고 서로의 발전을 위한 권고안을 내놓고 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오전 10시에서 5시까지로 예정된 회의는 네덜란드국립도서관 200주년 기념 전시회 참관과 만찬까지 겸하여 밤늦게 끝났다고 한다. 국립도서관장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은 다음날 아침 국립도서관 워크샵에서 보고되고 회의록은 추후 각 국립도서관에 배포된다.

다음날 워크샵에서 브리안 랑(Brian Lang) 영국도서관 관장은 CDNL에서 국립도서관들이 전자출판물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장기간 접근(access)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찾아내고, 전자출판물에 대한 법적 납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논의하였다고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 장치와 정부의 보증이 필요하다. 영국의 새로 명칭이 바뀐 문화부가 이를 적극 추진하게 될 것이다. CDNL은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비교적 정치가나 법률가 아닌 입장에서 실제적으로 문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자문(advice)하는 지원을 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어 메리베스 피터(Marybeth Peter) 미국 의회도서관 납본담당인이 ‘납본제도하에서의 전자출판물 납본’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하였다. LC는 1846년부터 납본이 시작되었고, 1978년부터는

모든 것을 MARC로 처리하였다. 한 때는 자원해서 납본하라고 했더니 한 건도 납본되지 않았던 경우가 있었고 따라서 법으로써 납본하도록 개정하였다고 한다. 지금 전자출판물에 대해서는 IBM Format Microsun을 사용하여 쉽게 복사한다고 하였다. 그밖에도 스웨덴 왕립도서관에서는 ‘웹 아카이빙(archiving)에 따르는 문제’에 대해, 네덜란드왕립도서관에서는 ‘전자출판물의 취급’에 대해 발표하였다. 이들은 주로 국립도서관이 전자출판물에 대한 기준(standard)을 결정해야 한다고 하였다.

●라이덴대학 일본학·한국학연구소●

국립도서관장회회의가 열리는 동안 우리 도서관의 교류처 중 하나인 라이덴대학 일본학·한국학연구소를 방문하였다. 우리 도서관은 한국학 자료를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도서관이 보낸 자료를 어떻게 이용시키는지, 교류처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가 등 자료교환에 관한 라이덴 대학측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암스테르담 중앙역에서 라이덴 중앙역까지 전철로 약 40분간, 라이덴으로 가는 길은 내내 평온한 초록빛 평원으로 이어져 있었다.

이 연구소는 1856년에 설립되었으며, 한국도서 및 한국관련도서는 약 15,000책, 일본도서는 약 30,000책이 소장되어 있다. 직원은 4명이며 가끔 시간제 근무자가 일하기도 한다고 한다. 한국학자료 담당자인 올로프(A.M. Olof)씨에 의하면 이용자는 학생, 교수를 비롯하여 일반인들도 이용하며, 방학 때는 벨기에에서도 찾아온

다고 한다. 올로프 씨는 이야기 도중 서가를 찾더니 네덜란드어로 쓰여진 유길준의 서유견문에 관한 얇은 책을 기념으로 준다고 하였다. 그밖에도 홍길동전과 한국 고시조가 네덜란드어로 번역되었으며, 이를 찾으면 우편으로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또한 이 연구소는 유럽지역 한국학협회의 뉴스레터 《AKSE NEWSLETTER》의 편집을 맡고 있었다. AKSE는 Association for Korean Studies in Europe의 약자이다. 최근에는 한국어를 배우러 오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어서, 한국어로 된 자료를 보내 주어도 좋다고 하였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네덜란드에서 발행되는 한국학 자료 이야기로 흘렀으며, 한국 관련 자료의 목록정보를 보내 줄 것을 요청하고 고서점도 소개받았다. 돌아오는 길에 소개받은 서점에 들러 1책을 구입하였다. 워낙 옛것을 좋아하는 네덜란드인들이라 고서점이 많았지만 한 군데에 몰려있지 않고 여러 곳에 흩어져 있다고 한다. 암스테르담에 돌아와서는 시간이 부족하여 책방은 몇 군데 못 가보고 골동품 가게 구경에 그쳤다.

●도서관 견학●

넷째날 IFLA대회 참가자들은 헤이그, 로테르담, 암스테르담 등 지역의 도서관을 방문하는 즐거움을 가졌다. 모두 26개의 코스가 준비되어 있었고 출발시간도 오전, 오후 조금씩 달랐다. 미리 등록 카운터에서 받아 둔 예약표에는 승차 버스 번호가 매겨져 있었다.

필자는 로테르담 지역으로 떠난 우리 일행과는 달리 국립도서관 워크샵을 듣고 오후에 네덜란드국립도서관(KB: Koninklijke Bibliotheek) 행 투어 버스에 올랐다. 자유롭게 앉은 자리에서 마리에 아스멧(Marje Aasmets) 에스토니아 학술도서관 부장과 함께 하게 되었다. 에스토니아에서는 주로 러시아에서 도서관학 공부를 한다고 한다. 본인은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으며 직원은 석·박사들이 중심이 된다고 하였다. 일일 안내양(?)이 된 네덜란드국립도서관 직원은 차창너머 풍경을 열심히 설명하였고, 그러는 사이 어느덧 헤이그에 도착하였다. 도서관측은 커피와 음료수, 간단한 먹을거리를 준비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KB는 1798년 빌헬름 5세 때 설립된 왕립도서관에 기원을 두고 있다. 그 후 1982년 헤이그 중앙역 바로 곁에 견고하게 보이는 현재의 건물로 옮겨왔다. 하얀색의 이 건물은 십여년이 지난 지금도 새로 지은 건물처럼 깨끗하고 책상과 의자 등 실내 가구는 상당히 고급스런 분위기를 자아냈다. 장서량은 도서가 220만책, 정기간행물이 15,000종, 중세의 필사본과 같은 귀중서 등이 소장되어 있다. 장서 증가량은 납본을 통해서 매년 평균 4만점이, 조사연구장서로 매년 평균 2만점이 증가하고 있다. 직원은 325명이며 이 중 전일근무자는 230명이라고 한다.

등록된 이용자는 9,500명이며 연간 65,000명이 도서관을 방문한다. 정보 요청에 대해 연간 10만건을 처리하고 있고, 문헌제공은 45,000건에 이른다. 네트워크 히트율은 연간 120만건이다.

국립도서관 견학은 지하 서고에서 시작되었

다. 서고는 매우 청결하고 쾌적하였다. 서고내의 책들은 우리 도서관이 사용하는 청구기호보다 훨씬 간단한 기호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생각하는 내게 돌아온 응답은 서가상의 위치를 나타내는 기호가 바로 청구기호라고 한다. 기송관과 컨베어 벨트 시설이 되어있어 서고책이 대출대까지 자동으로 운반된다.

KB는 완전 자동 시스템으로 “피카(Pica)”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다. Pica(www.pica.nl)는 2천만 이상의 레코드가 수록된 중앙 데이터 베이스로 도서, 정기간행물뿐만 아니라 잡지 기사, 시청각자료, 서신, 지도 등 다양한 매체에 대한 서지 기술을 포함하고 있다.

네덜란드 종합목록은 도서 1,000만 책과 정기간행물 35만종 이상의 서지사항을 수록하고 있다. 도서는 온라인으로 신청하여 빌릴 수 있고 복사할 수 있다. KB는 Pica와 공동으로 종합목록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다고 한다. 이상의 설명을 듣다보니 견학이 끝났다. 견학자들은 헤이그방면 도서관 견학 팀들과 일명 “헤이그의 심장”이라고 일컫는 건물에서 합류하였다. 옛것을 좋아하여 수 백년씩 묵은 건물이 허다하지만 이 건물은 시청 청사와 시립공공도서관 및 문서관이 들어있는 곳으로 흰색의 초현대식 디자인의 건물이었다. 건물은 철강재로 지어져 차가운 느낌이 들었지만 그곳에 마련된 음식은 따뜻하였다. 음식이 준비되는 동안 먼저 젊은 청년 악대가 신나는 연주를 시작하였다. 그 때 우 지안중(吳建中) 상해도서관 부관장이 인사를 건네 왔다. 한국에서 몇 명이 왔는가, 너무 적은 인원인 것 같다면, 내년 여름, IFLA Pre-Confer-

ence가 상해에서 열리는데 오라고 하였다. 견학자들이 식사하는 동안 음악대는 신나는 연주를 계속하였다.

### ◁ 폐회식 ▷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 국립도서관 상임위원회 회의를 참관할 수 있었다. 상임위원회는 발표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립도서관분과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와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 및 진행하고 있는 일에 관하여 운영위원들끼리의 회의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방청자로 참관할 수 있도록 약간의 의자를 준비해 두었다.

윈스턴 탭(Winston Tabb) 미국의회도서관 부관장이 회의를 이끌고 있었고, 이 자리에는 영국, 독일, 캐나다, 러시아 국립도서관장 등이 참석하였다. 이들은 국립도서관법, 국립도서관에서의 전자출판물, 문화유산으로서의 문헌보존법, 국립도서관의 정의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국립도서관에 관한 정의를 수정할 TASK 포스트를 맡은 캐나다 국립도서관의 마리안느 스코트(Marianne Scott) 관장이 준비해 온 수정안이 배포되었으며 여유가 있어 방청자들도 한 장씩 받았다. 이들은 한 번에 결정하는 것이 없고 늘 시간을 들여 연구하고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 결론을 내린다. 국립도서관에 대한 정의도 앞으로 여러 차례 수정안을 만든 다음 가장 만족스러운안이 마련되었을 때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이다.

폐회식은 오후 3시에 개회식을 했던 곳에서 거행되었다. 먼저 각 전문분과를 대표하여 전문

부회의 씨젤 닐슨(Sissel Nilsen, 노르웨이국립도서관) 의장의 각 부회의 종합 보고가 있었고, 이어 벤더빌트 대회조직위원장의 송별인사가 있었다. 계속해서 2000년에는 예루살렘으로 초청한다는 인사가 있었고, 1999년 대회 개최지인 방콕에의 초청인사가 이어졌다. 방콕 대표는 유머러스하게 참가비용이 싸다는 것을 강조하며 적극 참가를 부탁하였다. 잠깐이었지만 태국을 소개하는 영상을 보여주었다.

이어 시카고 일리노이대학도서관의 낸시 존(Nancy John) 제2 IFLA 부회장이 2003년 대회 개최지가 베를린으로 결정되었음을 공표하였다. 이에 베를린 참가자들은 환호성과 함께 테리 베어 인형을 회장에게 안겨주고 앉아있는 참가자들에게도 작은 곰인형 마스크트를 뿌렸다. 다음으로 레오 부그트(Leo Voogt) IFLA 사무총장이 새로운 IFLANET mirror site로 싱가포르 아랍에미레이트가 결정되었음을 알렸다.

잠시 후 무대위 대형화면에는 대회기간동안의 여러 장면과 자원봉사자들이 일하는 모습, 준비위원들의 스냅 사진들이 나타났고, 드레이크 로(런던 킹스대학도서관) IFLA 회계담당관이 이들의 노고를 설명할 때마다 참가자들은 감사의 박수를 보냈다. 자원봉사자들은 아주 젊은 층부터 나이가 지긋한 분까지 다양하였으나, 웃만큼은 빨강 티셔츠를 일색으로 입어 시각적 효과가 만점이었다. 한 자원봉사자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냐는 질문에 벨기에 공공도서관에서 일하고 있으며, 이번 자원봉사는 말 그대로 보수를 전혀 받지 않으며 자신은 이런 일을 하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하였다. 이



번 대회에서는 모두 75명의 자원봉사자가 활약했다고 한다.

드송 회장의 폐회 선언으로 매일 아침 일찍부터 바빴던 일주일이 지나가고 있었다. 대회전담 사진사가 찍어 전시에 걸어 두었던 사진도 차츰 사라져가고 있었다. 사진사가 찍은 사진은 전시대 옆에 있는 부스에서 한 장에 15 길더씩 낸 다음에야 영수증과 함께 받을 수 있었다. 우리도 몇 장의 사진을 찾았다.

대회기간동안 날씨는 쾌청하고 맑아 참가자들을 유쾌하게 하였는데 폐회식이 있는 날 비가 세차게 내렸다. 우리 일행은 대회가 끝나자 내리는 비는 “물”인데 아마도 떠나가는 참가자들을 아쉬워하는 네덜란드 동료들의 “눈물”일 것이라는 대회조직위원회의 인사를 뒤로하고 대회장을 나섰다.

이번 대회에서 개인적으로 구미의 도서관들이 전자출판물을 도서관에서 어떻게 수집·정리·보존할 것인가, 장서개발 및 수집, 도서관과 마케팅 분야 등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과 도서관과 출판사와의 협력 관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느꼈다. 그 밖에 편목 워크샵에서는 전자출판물의 서지기술, ISBD(ER: Electronic Resources)에 관한 실무 워크샵이 있었고, 학교도서관분과에서는 “학교도서관 선언(School Library Manifesto)”의 제4차 수정안이 발표되는 등 참가자들에게 풍성한 화제 거리가 되었다.

대회 기간 중 이동도서관분과가 열린 날, 근사하게 만들어진 이동도서관 여러 대가 대회장 건물 앞에 전시되었다. 차안은 운전석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고, 차의 좌우 벽은 모두 서가로 책이 2천책(?) 정도가 꽂혀 있었다. 깊숙이 들어가면 사무용 컴퓨터, 테이블, 싱크대, 포트, 전기콘로, 큰 에어컨이 갖추어져 있어 생활도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자동차 외부는 아름답게 칠해져 있었고,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하여 누구든 보면 들어가 보고 싶게만 만들어져 있었다. 새삼스레 우리 아파트를 찾아오던 이동도서관이 벌써 몇 년 전에 사라져 필자 자녀의 회원증이 쓸모 없게 되었을 때의 씁쓸함이 되살아났다.

일주간의 여행에서 모여진 자료는 가방을 꽉 채우고도 따로 들어야 했다. 이 자료들의 무게만큼 활용된다면 좋겠다.

### ○관광의 날○

그 다음날은 대회조직위원회가 마련한 네덜란드 명소를 방문하는 날이다. 대회 측은 반나절 코스에서 하루 종일코스까지 여러 군데로 갈 수 있도록 마련하였으며 참가자들은 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 날씨는 어느새 개어 햇볕이 좋았다. 우리 일행은 귀국할 가방을 버스에 실은 채, 한 부호의 기증으로 만들어졌다는 쾰러-뮐러(Kröller-Müller)박물관으로 안내되었다. 그곳은 숲이 우거진 야외 조각공원과 미술관이 있었다. 미술관 내에는 고희의 그림과 함께 유명한 네덜란드 화가들의 그림이 가득하였다. 그 다음으로 옛 왕가의 성 Loo Palace를 방문하여 궁내부의 화려했던 제국시대의 장식과 아름다운 인공미의 극치를 이룬 정원을 구경하였다. 이로

써 기우는 석양을 따라 쫓내기의 IFLA 참가 여  
행도 저물었다.

암스테르담은 해상 무역을 통해 일찍이 세계  
화의 길을 걸어 왔다고 읽었다. 암스테르담 중  
앙역 앞에 있는 “눈물의 탑”은 옛날 여인들이  
배타고 떠나는 남편을 보내면서 흘린 눈물의 상  
징이라고 하니 얼마나 세계를 주름잡고 다녔을  
까 싶다.

피부색이 다른 사람. 마치 세계 요리점 집합  
소 같은 레스토랑들. 동화 속에서 본 장난감 같  
은 좁은 집들, 거리를 자동차와 함께 달리는 전  
차(tram), 도심을 감싸듯이 흐르는 인공 운하,  
홀연 달빛에 젖은 아리아를 따라 가보니 다리  
아래서 배를 띄우고 기타와 하나가 된 청년. 시  
내를 질주하는 트램을 뺨다면 암스테르담의 풍  
경은 적어도 옛날 도시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  
고 있었다. 그러나 내부를 들여다보면 상당히  
최신 기술과 실용성을 강조한 시설들이 눈에 띄  
었다. 척박한 자연환경을 극복한 생활에서 배어  
나오는 것인지 견고한 인공의 냄새가 짙게 풍겨  
왔다. 그런 사람들이 옛 것을 좋아한다니 아이  
러니가 아닐 수 없다. 골동품 거리와 고서적상  
의 진열장. 암스테르담은 과연 과거와 현대의  
정보와 문화가 교차하는 곳인 것 같다.

이제 돌아와 그 한 주간의 정경을 돌이켜 보  
면, 이번 대회에서 개인적으로 얼마나 네트워크  
를 만들었는가. 그동안 업무와 관계있는 분과의  
활동에 관심을 가졌었던가. 도서관 관련 분야의  
외국 잡지는 고사하고 국내 잡지도 제대로 읽지  
않은데서 오는 낯선 단어들. 여기도 참석해야  
할 것 같고 저기도 참석해야 할 것 같았던 알맹

이 없는 괜한 분주함. 솔직히 그 자책였다.

그러나 외국의 동향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  
다는 점, 우리 도서관 교류기관을 방문하여 피  
드 백을 가졌다는 점, 또 하나는 그들의 화제에  
당당하게 끼어 들 수 있으려면 필자 자신을 스  
스로 ‘구조조정’하지 않으면 안됨을 절감하였다  
는 점이 이번 대회를 통해 얻은 수확이라면 수  
확이라고 하겠다. 한 가지 욕심을 부려본다면  
기왕에 나간 김에 기간을 며칠 더 늘려서 우리  
도서관 현안의 궁금함에 대해 외국의 사례를 살  
펴보고 온다면 보다 큰 수확을 얻을 수 있지 않  
았을까 생각해 본다.

결국은 우리가 전문가로서 타인에게 인정을  
받으려면 앞으로 도서관 업무 중 적어도 한 분  
야에 대해서만큼은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자신  
의 실력을 키워야 할 것이다. 비록 3-4년을 주  
기로 업무가 바뀐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스트  
레스성 압박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내년도 방콕  
대회를 그려본다. 그것도 34명쯤이 참가하여 각  
분과를 참석하는 꿈을 꾸어본다. 이것이 그냥  
하룻밤의 꿈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작기 IFLA 총회 개최지**

- 제65회** 1999. 8.20-28.  
태국 방콕
- 제66회** 2000  
이스라엘 예루살렘
- 제67회** 2001  
미국 보스턴
- 제68회** 2002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우
- 제69회** 2003  
독일 베를린